

박원호 목사의 12단계 성경공부 \_ 5단계

##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성경의 중심 주제들 I

예수, 예수 오직 예수!

|    |                          |    |
|----|--------------------------|----|
| 01 | 세속화 시대에 예수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 2  |
| 02 |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 8  |
| 03 |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 12 |
| 04 |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 16 |
| 05 |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              | 24 |
| 06 | 예수와 종교 다원주의              | 30 |



# 01

제 1 강

## 세속화 시대에 예수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마 16:13-20

주님을 배우는 것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은총이며 영광입니다.  
5 단계에서는 오직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 세속화 시대

오늘 우리는 세속화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속화라는 말은 종교적인 모든 전통과 상징들이 과학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버려지거나 거부되고 과학 정신이 세상과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상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성과 속의 구분은 사라지고 우리는 더 이상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의 이해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세상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이로움, 놀라움(awe)등의 영역들이 사라지고, 과학적인 신화만이 세상과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세상은 기계적인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에도 자리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 이해도 달라졌습니다. 인간 역시도 하나의 객체(object)처럼 다루어지고 측정되어지고 수량화되는 것이 인간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은 거부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 예수를 배운다 함은?

먼저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에 주님을 “배운다”는 말에 대해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배운다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웁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동시에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의 목적은 주님에 대한 호기심도 아니고 세상적인 동기도 아닙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란 단어는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5단계에서는 6시간에 걸쳐 오직 주님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주님의 탄생은 기원전 4년으로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주님은 자라시는 동안 몇 가지 언어들을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일상적인 말로는 아람어를 사용하셨고(당시 이스라엘이 아람의 속국) 성경을 읽기위한 히브리와 훗날 헬라어의 일부도 사용하셨습니다. 30여년이 지난 28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으며 귀신을 쫓아내셨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 깊은 구원의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특별히 공생애 초기부터 12 제자를 부르셔서 자신과 함께 하게 하였고 그들을 훈련하심으로 훗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사역들과 함께 성전에서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분노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를 계기로 로마에 넘겨졌고 그리고 혁명가에게 해당되는 십자가 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 족보와 예수

신약 성경을 보시면 가장 먼저 주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족보로 신약이 시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족보의 중요한 기능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능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선 구약의 바벨탑 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을 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악한 사건입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흠으셨습니다. 이 때 하나님의 세계는 멸망할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을 이어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건과 아브라함의 부르심 사건 사이에 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셈의 족보입니다. 족보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음으로 마치지만 셈의 족보는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데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생명으로 넘치는 족보입니다. 이는 죄의 죽음의 역사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셈의 족보 자체가 무언가 다른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는 주님의 족보와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이곳에도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족보에는 시대의 구분이 나타나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브

라함부터 다윗까지 열 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까지가 열 네 대입니다. 이를 통해서 밝히려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벨론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족보가 끝이 나자 곧 바로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듯 예수의 탄생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칼빈의 말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범주는 바로 메시아의 범주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틀에서 볼 때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종들을 말합니다. 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했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당장 “그가 메시아냐?”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오랫동안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이 어려움을 당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든 사역은 주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말자 헤롯 왕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을 감당해야 함

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곧 바로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상 모든 권세를 줄테니 내게 절하라”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과 죄의 왕 간의 싸움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죄와의 갈등 역사입니다. 죄가 온 땅을 덮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함께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세상을 구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왕은 이 땅에 의를 세우고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고 선지자들은 말씀을 통해 백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많은 왕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고 제사장들 역시도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선지자들이 충성된 종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에스겔, 아모스, 미가, 나훔, 하박국, 학개, 스가랴... 누구보다 충성된 종들이었지만 그들의 사역 또한 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완전한 메시아입니다. 예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범주는 바로 메시아로서의 범주입니다. 예수를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온전합니다. 그러면 메시아로서의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먼저 예수는 완전한 왕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예수는 광야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마귀의 무리들이 항복했고 떠났

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도, 귀신이 물러가는 것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모두가 왕으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는 완전한 선지자로서의 메시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일부는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고,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했고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주님과 구약의 선지자의 가장 큰 차이는 말씀의 주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명이었고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빛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를 뜻합니다. “내가 ... 이다”라는 표현은 유대 전통에서는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경이거나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아울러 주님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죄인을 찾아가셔서 죄 용서를 선포하셨고, 죄로 인해 고통하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마지막에 자신이 대 제사장이 되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온 세상을 향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가장 먼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제사장의 모습을 말합니다.



# 02

제 2 장

##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 막 1:14-15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위해 오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분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셨고(막 1:4, 15)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일들이었고, 주님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나라 가르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비유였습니다. 씨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장사 비유, 그물 비유 등,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비유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다룰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었습니다. 훗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케 될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메시아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메시아가 다가오면 그 다음 날로 죄악의 역사는 무너질 것이며 자신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것을 요구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시고 대신 모든 민족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예수 이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해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해함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 세운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주님을 소망을 품어야 하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도리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그 때부터 주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나라와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적인 힘과 무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기독교 왕국(Christendom)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는 훗날 십자군 전쟁과 같은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도 세상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축복에 매달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셨고 이름을 창대케 하신 것은, 결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저주에서 건지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복도 물질적인 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복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이 세상의 물질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세상을 죄악시하고 등지는 모습도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며 비록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며 구원할 세상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누룩과 같습니다. 기독교는 성숙의 구분을 허락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일을 거룩한 일이라 말하면서 다른 영역이나 일을 멸시하는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며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죄로 물들었기에 구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체의 절정(climax)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갖 굴곡을 겪으면서 마침내 준비가 완성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 오심으로 이 땅에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과 삶, 기도와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고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사역이었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마침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소망을 재정립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으며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완성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인물임을 고백했고 그리고 종말은 우주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폐지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또한 인종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민족이 의미합니다.

## **예수의 부활 : 다가올 시대의 시작**

신약은 예수의 부활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선포합니다. 이는 우주적인 결과를 가진 사건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나사로를 살릴 때, 자매들이 마지막 때를 말하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1:23-25). 즉, 이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이제 전 피조물의 갱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세 가지 이미지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부활(representative resurrection)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1) 장자(first born) : 골 1:8, 계 1:5
- 2) 첫 열매(first fruits) : 고전 15:20
- 3) 개척자(pioneer) : 히 2:10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모든”이란 말을 네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다니엘서 7장 14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인자가 모든 족속을 다스릴 것입니다.



## 03

제 3 강

#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 빌 2:1-11

주님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신학의 어떤 주제보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초대 교회가 가장 힘쓴 것도 주님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었고 아울러 가장 많은 이단들이 나타난 것도 주님의 본성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님을 온전한 사람으로 보는 견해와 주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로 갈라졌습니다.

전통적인 유대교에 따르면 주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유일신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당시의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인간으로 보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물질을 죄악시하는 교리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본성에 대한 교리는 치열한 갈등을 거친 뒤에 495년에 와서야 다 음과 같이 정립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시며 진실로 인간이시다. 한분 그리스도며 아들이며 주님이시며 독생자이시다. 두 본성은 혼돈도 없고 바꿈도 없고, 나뉘고 없고, 분리도 없다: 본성의 특징은 하나됨으로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오히려 각 본성의 특징은 보존되며 한 인격(person)을 이룬다.”

truly God and truly man... one and the same Christ, Son, Lord, only-begotten, recognized IN TWO NATURES, WITHOUT CONFUSION, WITHOUT CHANGE, WITHOUT DIVISION, WITHOUT SEPARATION; the distinction of natures in no way annulled by the union, but rath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nature being preserved and coming together to form one person and subsistence (hypostasis).

이러한 주님의 본성 이해는 당연히 성경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철학을 따른 것도 아니었고 당시의 타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주님의 두 본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위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셨습니다.

## 창조와 삼위일체

주님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살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창조 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창조 사역을 이루십니다. 세 위의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세 위 간에는 조금도 혼돈도 없고, 갈등도 없고 분리됨도 없고 아울러 바꿈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만물의 본성에도 반영되고 있고 사람에게도 반영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주를 설명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날은 저녁과 아침이라는 두 때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녁과 아침은 우주를 구성하는 두 요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밝음과 어두움, 뜨거움과 차가움이 대표적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혼돈도 갈등도 없으며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의 아름다움과 저녁에 드러나는 별의 아름다움은 양보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고 비교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 우주의 원리와 예수의 본성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날 물리학의 가르침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뫼비우스 때라고 알려진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서로 다른 두 힘이 각자의 고유함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반복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한 날은 저녁과 아침이라는 서로 다른 두 때가 이루고 있습니다. 저녁만도 아침만도 아닙니다.

## 인간과 예수의 본성

사람의 본성 역시도 하나님의 본성을 닮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따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라는 말합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라는 두 다른 개체가 함께 함으로 한 몸을 이룹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칼 융(C. Jung)에 따르면 부부는 성격적인 면에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 하나 됨은 어느 한 편을 포기하는 하나 됨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함을 유지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 됨입니다.

## 평화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독단적 존재가 아니라 세위가 서로 손잡고 협력함으로 하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 안에는 다름에 대한 존중과 협력함과 하나됨이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이 땅의 평화는 무력을 사용하는 로마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거슬리는 평화이며 생명의 고통을 담보로 하는 평화입니다.

참된 평화는 한 편만 인정하고 다른 편을 무시하거나 억압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점을 인정하고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 04

제 4 강

#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고전 15:1-11

## 예수는 영웅?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던 다위(David Dawe)라는 신학자가 쓴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왜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소망했고 그리고 메시아의 모습을 나름대로 예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타난 모습이 바로 영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메시아가 영웅처럼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우리 백성을 구하실 것이란 이미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이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사실이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이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리고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느냐?”

다위 교수에 따르면 이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영웅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랬고 사두개인도 그랬고 일반 백성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대를 저 버렸습니다.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 약한 자, 죄인과 함께 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마지막에 한 말을? “지금이라도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지막까지 기다렸지만 주님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흩어져 버렸고 제자들도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이러한 대답에는 예수가 종교적인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예수에게 영웅이 되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웅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무엇이 영웅입니까?

영웅이란 인간의 한계,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서 초인간적 능력으로 죽음의 영역에 있는 악마적이고 초자연적인 세력을 대면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물리치고 백성을 구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 영웅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풁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웅이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그런 영웅도 거부하셨고, 사무라이 같은 영웅도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을 받으셨고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게 되자 이들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이

거부한 십자가는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영웅의 권세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생명을 구원 하셨습니다. 영웅은 자기편이 이겨야 하고 상대방이 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편을 이기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랑엔 폭력이 없습니다. 말의 폭력도, 행동의 폭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섬김이 있으며 함께 함이 있습니다. 고통하는 사람을 섬기고 함께 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모든 고통은 우리와 함께 함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함께 하신 고통이며 좌절과 함께 하신 고통이며 우리의 외로움과 함께 하신 고통입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악의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능력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땅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고 생명이 새롭게 됐습니다.

우리가 고통할 때 주님은 영웅으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외로워하시고 함께 좌절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실패와 좌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는 유일한 힘입니다. 사랑은 결코 연약한 힘이 아니며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십자가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거부하는 사랑의 능력이 있고, 악을 거부하는 사랑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이로써 이 땅에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능력입니다.

## **영웅으로서 예수 Jesus as Hero**

인류학적으로나 종교 역사가들은 여러 전통들에서 심리적이고 신화적인 종교 영웅들의 패턴을 규정합니다. 그 패턴은 단순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웅은 일상의 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세력들인을 대적합니다. 영웅은 세상의 세력과 타협하기를 거부하며, 악한 세력이 갖는 고난을 겪습니다. 영웅은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서 죽음의 영역에 있는 악마적인 초자연적인 세력을 대면합니다. 영웅은 거룩에 사로잡혀 구원을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영웅은 자신이 발견한 궁극적 실체에 대한 새 지식을 가지고 이런 모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 베품으로 나아갑니다. 영웅의 여러 패턴이 있지만 공통점은, (Campbell의 판단에 따르면) monomyth로서 그 이면의 일치성은 여러 역사적 환경에서 규정됩니다. 이러한 영웅 이해는 후기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이해에 있어서 종교적 영웅 패턴 이해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영웅에 대한 이해는 예

수 안에 있는 계시의 역사적 상황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계시는 예수가 종교적 영웅의 역할을 떠맡는 순간에 일어나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를 넘어섭니다. 영웅의 관점에서 예수를 볼 때, 계시는 인간적 종교성의 패턴들을 갖게 됨과 동시에 그 안에서 위기를 재촉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종교적 위기를 일으켰기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계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한 방식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영웅은 초월과의 만남에서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며 영웅은 인간이 존재가 가진 신적 능력을 나눔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됨을 보여줍니다.

영웅-성자는 은총에 사로잡혀 자신의 본성이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영웅은 신적 영역을 경험하기에 그 능력을 인간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이 영웅을 구세주로 만듭니다. 이러한 패턴이 초기 기독교론의 배경입니다(행 2:36, 빌 2:9-11). 영웅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하며 영웅은 모든 시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예수도 종교적 영웅?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으셨습니다. 예수는 고요히 죽음을 맞은 것이 아니며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대조됩니다. 지키신다는 언약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구원하실 수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묵시 전통의 경우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봄과 보호의 언약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경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에 초자연적 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악의 세력이 붕괴되지 않았고 제자들은 흩어졌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무너졌습니다.

## 구속의 이론들

이제 성경에 나타난 구속의 이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에 관한 한 성경엔 두 사건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신약은 구속에 대해 한 가지 이론을 말하지 않기에 훗날 교회는 여러 이론들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속은 신약과 구약이 같아야 하며 비록 방법은 다르더라도 목적과 목표는 같아야 합니다. 이를 다루는 이유는 구속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에 일단 한번 받아들여지면 우리의 이해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의 첫 1000년 동안 공적인 구속 교리가 없었으며 후에 여러 이론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이론이 나타났느냐? 그 이유는 예수의 사역에 대해 여러 은유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다섯 가지 은유(metaphor)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1) 대속(ransom) 막 10:45
- 2) expiation 롬 3:24-26
- 3) 화해(reconciliation) 고후 5:18
- 4) 저주가 되심으로 구원(redemption by becoming a curse) 갈 3:13
- 5) 하나님의 자녀가 됨, 구원, 죄 용서, 하나됨(becoming God's children, redemption, forgiveness of sins, uniting) 엡 1:5-10

이제 전통적 견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1) 만족 또는 대속 이론 The satisfaction or substitutionary theory

이 이론은 1097년 안셀름(Anselm)의 책 Cur Deus Homo?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느냐? Why the God Man?)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만 죽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도덕적인 질서를 여기면서 우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께 아무 빚이 없습니다. 자신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전(a substitute)으로 드려서 우리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분노는 예수에게 주어졌으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고 저주로부터 놓여졌다. 이 이론이 정통 이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예수의 죽음을 살롬 정의가 아니라 징벌 정의(puishing justice)의 틀에서 해석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 2) 도덕적 영향 이론 The moral influence theory

이는 아벨라르(Abelard)에 의한 것으로 (Anselm 바로 다음) 안셀름의 이론이 가진 하나님의 냉정함, 거리, 분노에 대한 반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만죽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살아나고 삶도 변화됩니다. 이 사랑이 의 인화의 기초입니다.

도덕 영향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대속 교리를 보완하지만, 왜 예수가 죽었는지에 대해선 온전히 설명 못합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이 죽었느냐? 다른 길은 없느냐?

### 3) 고전적 견해

오늘날 새로운 견해가 등장했는데, 스웨덴 신학자 구스타프 아울렌(Gustav Aulen)가 주장한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고전적 견해라 말하는 이유는 초대 교회와 교부의 사상을 나타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선과 악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으며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 악의 편에 섰습니다. 악의 역사는 우리 안과 사회 안에(racism, sexism, classism 등) 함께 역사합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는 개인의 죄를 용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인 차원도 해결해야 합니다. 갈 1:4, 고전 15:22-26.

이 견해는 예수와 악의 세력 간의 지속적인 전쟁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강조하며 내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이론의 단점은 너무 이분법적이며 악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 구원과 샬롬 정의 salvation and shalom justice

사무엘상 12장 9-10절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원수로부터 구원을 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단지 구하기만 합니다.

이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은혜로 구하심이며 필요에 따라 구하시는 것이지 공로가 아닙니다. 물론 억압 자체가 공로도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도 이들이 선행서가 아니며 하나님이 구하신 것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grace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억압 받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해방이며, 억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 05

제 5 강

##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

마 13:1-9

주님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주된 관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주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비유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간섭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12부족을 모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세계적인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무너질 것이다. 흩어진 무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유를 다룰 때에 개별적으로 다룰 수도 있고 묶어서 주제별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제별로 다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의 차이였습니다.

주님의 이해와 바리새인들의 이해, 그리고 백성들의 이해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위기와 긴급함의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 1:15, 마 4:17)는 말씀은 긴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눅 10:4에서는 길에서 아무에게도(다른 여행자들) 문안하지 말며, 눅 9:5에서는 한곳에 오래 머물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고(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아라) 마 8:22에서는 죽은 부모에게 작별 인사도 금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새로운 무언가가, 새로운 시대가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의 비유

이제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예수의 인격과 행위 안에서 도달했습니다. 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 참여는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사역은 옛 시대와 새 시대 사이의 갈등과 충돌로 묘사되어야 하며 새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이 아니며 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역동적 본질이요 사건입니다.

옛 시대는 아담의 불순종에 의한 시대로서 악, 죄, 병으로 특징짓는 시대인

반면 새 시대는 병든 자가 치유 받고 맹인이 보며, 듣지 못하는 자들이 회복되는 때이며 억눌린 자들이 자유 함을 얻는 때입니다.

두 시대 사이의 갈등은 종교적 그룹과의 갈등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옛 시대에 안정된 사람들의 와해를 대표하며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식탁에 초대 받습니다.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전통의 수호자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유는 예수의 가르침의 3분의 1을 구성하며 마가복음에서는 16 퍼센트, 마태복음에서는 43 퍼센트, 누가복음에서는 52 퍼센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비유 대신에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대신합니다(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비유는 당시의 랍비들도 사용한 장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른 점은 랍비들은 성서(권위 있는 텍스트)의 숨은 의미를 발견하는 목적이고, 예수님의 비유는 설교 그 자체이며 이야기 자체가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예수의 행동과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의 갈등; 주님과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눅 7:36의 경우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을 받아서 들어가셨고 이 때 한 여인이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눅 13:31을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염려해주었습니다.

갈등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참 이스라엘과 그 외 부류와를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정죄하거나 멀리했습니다. 특히 이방인과 유대인간의 구분은 그 어떤 구분보다 엄격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의 경우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경우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는 죄인과 의인 모두에게 주어짐이 식탁교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경우 죄인은 먼저 회개해야하며 그리고 용서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값없고 보류되지 않은 은혜의 용서가 회개에 앞선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는 은총의 응답이지 전제 조건이 아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은 토라의 규칙을 전체 공동체에 적용하려고 함으로 인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 비유의 본질

이제 비유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이나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세계는 직접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그림에 묘사된 태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도처에서 나타납니다. 토마스 쿤이 “과학 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University Press, 1962)에서 말하기를 과학적 혁명은 어떤 이가 중요하게 다른 모델을 상상할 때에 일어나며 이 대안이 새로운 발견을 개방한다고 말합니

다. (지구가 중심이라는 관점과 태양이 중심이라는 관점의 차이)

비유는 하나님, 세상, 이웃,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잠시 출현할 것이며 급작스러운 섬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 1) 하나님 통치의 침입

새 시대는 밖으로부터 갑자기 다가올 것이며 그리고 다가오면 전적으로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옛 시대는 마귀, 병, 정신 이상 등으로 특징 지워 지는 시대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악의 역사에 대해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며 악의 세력이 저항할 것입니다(마 10:23).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모으셔서 악의 세력을 대비케 할 것입니다. 심판은 준비 안된 사람에게는 극심할 것이며,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 2) 사탄의 세력에 대한 공격; 나뉘어진 집과 나라의 비유

마 12:25, 막 3:23-27, 눅 11:17-23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에 대해 공격할 것이며 격렬한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 3) 새 시대의 급작스러운 도래

막 13:33-37, 눅 12:35-38에 나타는 문지기의 비유는 주인이 예상치 않은 때의 찾아올 것을 보여주며 종들은 항상 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충실한 종과 불충한 종의 비유(마 24:45-51, 눅 12:42-46), 강도의 비유(마 24:42-44, 눅 12:39-40) 무화과나무의 비유(마 24:32, 막 13:28, 눅 21:29-31) 열 처녀 비유(마 25:1-13)는 모두가 새로운 시

대가 급작스럽게 도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4) 새 시대와 옛 시대의 불 양립(Incompatibility)**

새 옷과 헌옷, 새 포도주와 헌 포도주, 새 가죽부대와 헌 가죽부대의 비유(마 9:16, 17, 막 2:21, 22, 눅 5:36-39)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 시대가 함께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 **5) 새 시대의 기쁨;**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외되고 정죄된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 시대는 범죄한 사람에 대한 값없는 용서의 확장으로 특징 지워집니다. 대표적으로 세리들, 죄인들이 있습니다.

#### **6) 잃어버린 자의 돌아옴**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눅 15:8-10), 탕자의 비유(눅 15:11-32)는 당시에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옴을 말합니다.

#### **7) 발견의 기쁨**

숨겨진 보물과 진주의 비유(마 13:44-46)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 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06

제 6 강

## 예수와 종교 다원주의

골 1:1-23

###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

초대교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심각하게 보편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예수는 모든 시대와 공간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종말 때 예수의 심판과 구원은 모든 민족과 장소를 포함할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약간의 역사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유대교는 보편성을 가진 종교였습니다. 율법 자체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거룩한 정의divine justice로서, 모든 나라의 흥망을 주관하시며 마지막에는 유대에게 맡겨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민족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선 분명치 않았습니다.

초대 교회는 유대교를 계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보편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만주의 주이시며 예수의 부활과 승천으로 모든 민족이 무릎 꿇을 것(빌 2:9-10)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땅 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4세기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 중세 기독교의 도전

중세가 되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문명에 대한 관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5세기의 Nicholas of Cusa는 보편적 종교(a universal religion)를 꿈꾸면서 인간을 분열시키고 전쟁을 일으킨 비극적 차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시 서구의 기독교는 유대교나 이슬람 외에는 타종교에 대해 거의 인식이 없었습니다.

16세기가 되면서 유럽인들은 탐험과 식민지화의 시대로 접어들습니다. 이는 이들이 사회 정치적 인식만 아니라 종교적 인식도 바꾸었습니다. 서양의 기독교는 이제 타 종교를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말했던 “온 세상”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러한 인식은 경건운동과 부흥운동을 야기시켰습니다.

예수의 주되심은 선교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야 했습니다. 18세기 말 근대 선교운동은 100년 이상 확장되었고, 기독교의 세계의 타종교와 접촉케 됩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나 유럽 종족들을 향한 선교 운동과 달리 근대 선교 운동은 타종교를 무너지게 하거나 대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주 되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바라볼 필요를 갖게 합니다.

## 현대의 종교적 상황

오늘의 종교적 상황에서는, 기독교가 타종교를 대치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종교 다원주의가 더 팽배할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예수의 주되심에 대해 새로운 설명을 요구합니다.

물론 예수의 계시는 종교적인 광신주의나 모든 종교를 동일시하는 세속적인 무관심을 통해서 고백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 다원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임을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은 개인적 이름을 아는 것이나 신학적 공식을 반복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름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신성한 능력과 접촉이 되어야 하며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예수의 인격의 신비를 아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이름이란 그 사람의 본질이나 행위와 본질적인 연관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름은 그저 명목상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름은 존재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사람의 내적 실체를 표현하며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어떤 존재의 능력이 작용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심각한 변화를 겪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이름 안에 예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의 삶, 죽음, 부활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습니다(빌 2:5-11). 예수는 부활로 인해 새롭고 존귀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행 2:36).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에게서 나타난 죽음과 새 생명을 통한 구원의 패턴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사람의 새로운 존재의 패턴을 의미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죽음과 부활의 새로운 패턴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고 형성하고 통제하는 것에서 의미와 안전을 찾음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에게 자신을 개방하는 자

들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이란 우리 자신의 힘의 연장인 의미와 안전의 중심을 포기하고, 우리가 만들 수도 형성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존재 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주의 패턴은 우리 자신의 수단으로 안전으로 확보하는 것이며 이렇게 사는 것은, 신약 성경에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주는 하나님 처럼 되려는 아담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며, 구원은 예수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사랑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종의 형태를 가지며 하나님을 향하여 개방적인 삶을 사는 것이 치유와 새 생명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종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사랑의 섬김에 헌신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를 만날 때 우리는 물어야 할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선교사의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데리고 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종교적인 전통들이나 공동체들을 포함해서) 온 세상에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로서의 예수는 세상 창조와 유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이셨습니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디도 없습니다.



# Memo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_갈라디아서 6:9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_로마서 6:11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_ 고린도전서 1:25



 Memo



 Memo



## 12단계 개관

- 1단계 왜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밖에 없는가?
- 2단계 성경의 기본 I
- 3단계 성경의 기본 II
- 4단계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라! 성경의 파노라마
- 5단계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성경의 중심 주제들 I
- 6단계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성경의 중심 주제들 II
- 7단계 성경과 교회
- 8단계 성경과 삶의 과제 I
- 9단계 성경과 삶의 과제 II
- 10단계 성경과 사회 I
- 11단계 성경과 사회 II
- 12단계 성경과 타종교, 이단